



‘불심수도’ 부산에 수행 바람

해운정사, 출·재가 600명 3박4일 철야정진...진제 스님 지도

‘탁, 탁, 탁...’
나른한 오후의 정적을 가르는 죽비 소리에 수마(睡魔)를 견디지 못하던 사부대중이 다시금 마음을 다잡는다. 쉼 새 없이 지저귀던 잠새도, 대숲에 스치는 바람도,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까지 묵인 중인 해운정사는 지금 참선 대웅명정진의 열기로 뜨겁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종교편향과 한반도를 강타한 미국발 경제 위기까지 혼란스러운 이때, 불심의 도시 부산 불교계가 수행불교로 거듭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참선도량 부산 해운정사(조실 진제)는 10월 13-16일 3박4일간 참선 철야 용맹정진을 실시했다. 남녀 재가불자 500명과 비구·비구니스님 100명까지 총 600여 사부대중이 한 자리에 모여 마주보고 앉아 화두삼매에 들었다. 스님과 재가자가 함께 정진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지만, 부처님 앞에서는 ‘다 함께 깨달음을 기약함’ 수행자이기에 특별할 것도 없다.

첫날 입재식에서 진제 스님은 용맹정진에 참여한 대중에게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련고?”라는 화두를 제시했다. 이어 스님은 “참가한 모든 대중은 과거 전생의 수승한 인연으로 경성의 분을 심본 각 추었으니 신심을 내어 화두가 3박4일간 순일해서 대장부의 활개를 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문이 끝나자 이들은 3박4일간 잠들지 않고 하루 20시간씩 참선에 몰입했다. 매 시간 조실스님이 직접 죽비로 경책하고, 오후 1시부터 3시간 동안은 진제 스님이 조실방문을 활짝 열고 수행자들의 공부도 점검해주었다.

해운정사는 1971년 산문을 연 이후 40여 년 넘게 ‘참나’를 찾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수행자들이 찾고 있다. 이번 법회에 동반 참가한 김상배·김길자씨 부부는 진제 스님을 친견하기 위해 용맹정진을 결심했다. 또 어머니를 따라 왔다는 임중국(26) 학생은 한숨도 자지 않고 3박4일 참선을 해야 한다는 말에 걱정했지만 수계를 받기 위해 묵묵히 정진하기로 다짐했다.

45분의 참선 이후 15분간의 포행 시간에는 선방을 한 바퀴 돈다. 두 손을 배 밑에 포개 대고 굳은 어깨를 추스른다. 하지만 화두는 끝끝내 놓지 않는다. ‘참나는 어떤 것인가?’를 의심하고 또 의심한다. 그리고 또다시 참선이 반복된다. 시간이 지날 수록 졸음과 피로가 참가자들의 눈꺼풀과 어깨를 짓누른다. 자기도 모르게 스

르르 눈이 감길라 치면 여지없이 죽비가 어깨를 내려친다. ‘탁!’ 하는 소리에 옆 사람까지 정신이 번쩍 든다. 이렇게 조실스님은 3박4일간 600여 사부대중과 함께 철야정진을 하며 직접 죽비를 들고 경책한 것이다.

진제 스님은 백양사 1차, 2차 무차선법회에 법주로 참석해 사부대중에게 선법을 열어 보이고, 2002년 해운정사에서 열린 한·중·일 국제무차선대회를 통해 현대인에게 생활속 참선과 화두 수행으로 ‘참나’를 찾아가는 깨달음의 세계를 보여준 선지식으로 정평이 나왔다.

스님은 “근대 인류가 직면한 격변과 재앙이 안타깝다. 세상이 어렵고 혼란할수록 자신의 내면을 갈무리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 세파에 흔들

리지 않는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이라며, “참선은 모든 중생심을 맑끔히 씻어내는 것으로, 이번 용맹정진을 통해 모두가 자기를 성찰하고 큰 지혜를 밝혀 화합과 상생의 삶을 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날인 16일 오전 11시 원통보전에서 회향 및 재가오계 수계식이 열렸다. 용맹정진에 참가한 600여 사부대중을 포함한 2000여 재가불자가 진제 스님으로부터 수계를 받음으로서 3박4일의 짧고도 굵은 수행결사는 회향을 맞았다.

해운정사는 앞으로 음력 9월 15일부터 18일까지를 참선철야용맹정진 기간으로 정하고 매년 개최할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dbp@hanmail.net



해운정사 조실 진제 스님이 제시한 ‘부모미생전 본래면목’ 화두를 참구하는 출·재가 수행자들. 600여 수행자들은 10월 13-16일 잠을 자지 않고 용맹정진했다.



어르신들 산사 나들이 경기도 의왕 청계사(주지 성행)는 10월 15일 경내에서 의왕시와 함께 ‘제2회 의왕시 어르신 청계사 나들이’를 개최했다. 다양한 사회변화에 따른 노인의 인식개선과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나들이에는 의왕시 전 지역에서 150여 명의 어르신이 참가해 천년고찰 청계사의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고 다양한 공연을 관람했다. 박재원 기자

社 告 ■ 종교편향 근절 호법캠페인

“공공기관에 현대불교를 보냅니다”

본사에서는 국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특수법인,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에 현대불교 보내기 캠페인을 벌입니다. 한 장의 ‘호법보살’인 현대불교는 불교문화의 제대로 알리는 포교기능과 종교편향 및 해불 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불교를 외화하고 불법을 널리 전하는 최일선의 포교사가 될 것입니다.

- 법보시 대상**
청와대 각부서/국회의원실/정부(15부 2처)/경찰청/지방자치단체/각급 교육기관/전국 공공도서관/군부대
- 법보시 후원 안내**
-법보시는 1구좌 1,000원 이상 -계좌: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문의 대표(02)2004-8200**
-법보시는 1구좌 1,000원 이상 -계좌: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행정안전부 주요 부서에 법보시 신문 발송>

독자께서 보내주신 법보시 후원금이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실, 제1차관실, 제2차관실, 대변인실, 기획조정실, 지방행정국, 중앙공무원연수원, 국가기록원 등 주요부서에 본지 702호부터 발송합니다.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강명화 변호사 | 031)438-3054 010-7504-4521

www.buddhabook.co.kr
02_3672_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순 황산화 원액 100%”
청다향
부처님 제일공양 한국최초 식품과학 연구분석(동국대) 51가지 향기원형
덕유산 청다향 문의 055)941-1083

불가 최초성수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관불·관육 전용 관불수향
올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인향당 향·조각·공양물
본사 02)3663-6777 직영매장 (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전선(케이블)_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_대구 정정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_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C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인등 LED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아름다운 등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종등

만월등(주름등) 팔각봉축접등 종등

창덕연등 경기도 평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주름등·전선시공·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